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78호 【루체 제25221호】 주제 105 (2016)년 3월 18일 (금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암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또 하나의 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로숙하고 세련된 평도따라  
당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비상한 애국열의를 안고  
총걸기 하여 세기를 주름잡  
으며 주체혁명위업 완성의  
최후승리를 향해 폭풍노도  
쳐 내달리는 우리 군대  
와 인민의 앞길을 한사코  
가로막으려고 미쳐 날뛰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전대미문의 제재와 압살  
책동은 국도에 달하고  
있다.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사회주의는 지키면 승리이고  
버리면 죽음이라는 철리를  
뼈에 새기었기에 우리  
군대와 인민은 그처럼 엄혹  
했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도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사회주의와 끝까지  
운명을 함께 하였으며 우리  
나라를 그 누구도 감히  
범접 못하는 당당한 핵보유국,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  
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목  
숨보다 귀중히 여기는 삶  
의 터전인 사회주의제도를  
없애버리려는 원쑤들의 비  
렬하고 치졸한 제재암살책

동이 가증될수록 우리의 생명인 사회  
주의를 피로써 지키고 제힘으로 사회  
주의 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워  
온 세상이 부럽도록 잘 살려는 천만  
민의 혁명적의지와 정신력은 천배만배  
로 강해지고 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맞받아나가는 백두의  
공격점진으로 원쑤들의 반공화국제재

암살책동을 단호히 징벌하시며 70일  
전투의 철야진군을 진두에서 지휘하  
시는 그처럼 분망하신 속에서 현지에  
나오시여 금수산태양궁전과 룽흥네거  
리사이에 일떠설 혁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

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들인  
조용원동지, 김여정동지, 김창광동지가  
동행하였다.

현지에 도착하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체의 최고성지 금수산태양  
궁전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아 너를  
빛내리라는 역사의 맹세를 다지신 통남  
산을 바라보시며 조선혁명의 혁명이 밝  
아오는 뜻깊은 곳에 일떠세우는 거리의  
이름을 《혁명거리》로 명명하자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  
거리형성안과 조감도, 모형사판 등을  
보시면서 혁명거리를 우리 당의 과학  
중시, 인재중시사상과 사회주의조선  
의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떠세우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침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  
거리를 날로 비약하는 주체적건축예  
술의 척도가 융축된 거리, 사회주의문  
명국의 체모에 맞는 거리, 혁명의  
수도 평양시를 더욱 웅장화려하게  
변모시킬 거리로 일떠세우자면 거리  
형성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통흥네  
거리의 영생탑주변에 웅장화려한 고층  
건물들로 건축군을 형성하고 금수산  
태양궁전주변에는 정중성보장의 원칙

에서 아담한 다층건물들을  
배치하며 금릉2동굴로 뻗은  
도로주변에 지대적 특성  
과 조화되는 건물들을 일  
떠세우면 혁명거리형성이  
특색있게 될것이라고 말씀  
하시였다.

혁명거리건설에서 기본은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들을  
비롯한 과학자, 연구사  
들이 살게 될 살림집들, 타  
아소, 유치원, 세탁소, 체신  
소 등 공공건물들과 봉사망  
들을 훌륭히 일떠세우는 것  
이라고 하시면서 이와 함께  
김일성종합대학 3호교사  
건설도 동시에 밀고나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거리를 21세기 에  
네르기질 약형거리, 륙색형  
거리로 만들자는 것이 당의  
의도라고 하시면서 설계 및  
시공단위들에서 살림집과  
공공건물에 필요한 조명과  
난방문제를 태양빛전지와  
지열, 자연체광 등으로 해  
결하며 건물옥상들에 온실  
을 조성하여 건축물의 륙색화  
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기하고 투쟁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혁명거리건설에 필요한 세멘트와 강  
재 등 자재보장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특히 건축물의 부장식 용마감건재의  
규격과 색깔, 무늬 등을 다양화, 다색화  
하기 위한 사업도 짜고들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건축공사의 속도와 질을 보장하고  
투자의 효과성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려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건설에서의 최량화  
방안을 적극 탐구 동원하는 것과 함께  
설계부문과 시공단위, 감독기관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  
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  
인민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으로  
미래과학자거리건설에 동원되었던  
군인건설자들을 혁명거리건설에  
또다시 파견해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전당적, 전국적, 전사회적으로  
혁명거리건설을 적극 지원하며 이  
사업에서 내각과 위원회, 성, 중앙  
기관들이 앞장에서 서야 한다고 지시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  
거리가 일어서면 우리가 최근 해마다  
거리를 하나씩 건설한 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이것은 기존건설공법의 요구에  
비추어볼 때 주체조선의 건설속도는 세  
상이 알지 못하는 만리마의 속도라고  
말씀하시였다.

# 적대세력들의 악랄한 제재암살책동을 짓부시고 자력자강으로 부강조국을 보란듯이 일떠세워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불굴의 의지를 힘있게 과시하게 될 또 하나의 거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혁명거리건설을 선포하시고 건설에서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 1면에서 계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거

리건설은 단순한 거리형성이 아니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그 어떤 형태  
의 제재와 압력 속에서도 더욱 억세게  
뻗치고 일어나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돌  
진하는 조선의 기상, 인민의 최고리상  
실현을 위해 나아가는 조선의 모습,  
우리가 일단 마음먹은 것은 다 할수

있으며 우리식대로 남들이 보란듯이  
잘 살수 있다는것을 뚜렷히 보여 주는  
정치적 계기로 된다고 힘주어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를  
어째보려고 어리석게 날뛰는 원쑤들의  
발악이 날이 갈수록 더욱 악랄해지고 있  
는 것은 우리가 전진하고 있으며 승리하  
고 있다는데 대한 가장 명백한 증명이  
라고 하시면서 혁명거리건설 착공의 첫  
삽을 박는것으로써 자력자강으로 부강

조국을 건설해 가는 선군조선의 불패의  
국력을 힘있게 과시하고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철회로 원쑤들의 머리를  
후려치며 더러운 몸뚱아리에 치명적타  
격을 안기는 비수를 꽂자고 말씀하시  
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혁명거  
리건설은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과의  
치렬한 대결전이라고 하시면서 혁명  
거리를 올해중에 반드시 일떠세움으  
로써 우리 군대와 인민들에게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고 밝고 창창한  
래일을 내다보며 자기의 뚜렷한 앞길  
을 개척하는 우리의 힘, 세계가 알지도  
못하고 알수도 없는 주체조선의  
필승불패의 전통을 다시금 과시하고자  
열렬히 호소하시였다.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희세의 천출명장  
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  
결하여 자기 운명에 대한 굳건한  
믿음, 광휘로운 앞날에 대한 열정으로

십장을 끓이며 최후승리를 향하여 백두  
의 칼바람마냥 내달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을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아무리 발악하여도 절대로 가로막지  
못할것이다.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은 이 불변  
의 진리를 력사의 갈피에 아로새기  
며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의 최후  
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전진해  
나갈것이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 74돐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여온 여러 나라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레인 세인 만마련방공  
화국 대통령, 바사르 알 아嘶드 수리아이란공화국 대  
통령, 무함마드 부하리 나이제리아연방공화국 대통  
령, 요웨리 카구타 무세메니 우간다공화국 대통령에  
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또한 김일성김정일기금

리사회 공동리사장, 주체사상국제연구소 리사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의 탄생일에 즈음하여 충심으로  
되는 축하를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  
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와 해당 나라  
들 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끊임없이 확대 강화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고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 사회적 발전  
을 위한 그들의 사업에서 보다 큰 승리와 성과가 있  
도록 축원하시였다.

본사기자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실했음을  
지니고 사회와 집단을 위하여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선군시대 공로자의 값들은 영예를 가슴깊이  
간직한 신의주시직판선전사 당세포비서 조귀남  
은 대중을 강성국가건설에로 힘있게 불려일으  
키기 위한 직관선전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쳤으며 인민군대원호와 중요대상건설장들에  
대한 지원에도 앞장섰으로써 집단의 존경을 받  
고있다.

천만군민을 투철한 반체계급의식으로 절저히  
무장시키는데 적으나마 이바지 할 열의밀에  
제 금교양지도국 산하단위 부원 김세준은 중앙  
제 금교양관공사장에서 건설자들과 승걸을 같이  
하면서로 혁적, 물질적 지원 사업을 힘있게

벌리었다.  
해당화교류사로동자 유헌경은 반체계급교양  
의 열도를 그 어느때보다 더욱 높일데 대한 당  
의 의도를 심장깊이 새겨안고 온 기족과 함께  
여러차례 힘있는 후방사업으로 제 금교양기지건  
설을 다그치고있는 전투원들의 사기를 북돋아  
주었다.

조선국제여행사 안내부원 한금복, 류경건설관  
리국 산하단위 통역원 김현희도 혁명적기상이  
나에게는 전투현장에서 경제선돌도 하고 건설  
자들에게 많은 자제도 넘겨주어 공사속도를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뜨거운 혁명적 동지애와 인간에 대한 지극  
한 사랑을 지닌 평양시 구급병원 의료일군들  
과 종업원들은 뜻하지 않게 화상당한 탄부들을  
소생시키기 위해 자기들의 피부를 이식해

주고 낫파 밤이 따로 없는 치료전투를 벌여  
그들을 다시 혁명초소에 세우는 소행을 발휘  
하였다.

황해북도인민병원 책임의사 김명월은 인민에  
대한 열사복무의 정신으로 수십년간 치료사업  
에 헌신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광명을 되찾  
아주고 환자들의 질병치료를 위해 온갖 정성을  
다함으로써 당시의 품속에서 자라난 인간생명의  
기사로서의 고상한 정신세계와 풍모를 남김 없  
이 보여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무  
한한 감격속에 밟아온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김정일에 국주의를 심장깊이 간직하고 사회주의  
조국의 부강번영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 더  
욱 헌신할 열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 조선의 불벼락선언—종국적멸망의 마지막폐지 써주리라!

백두산대 국이 불벼락선언을 하였다.

무섭게 도약하는 백두산해강국의 위용에 기침초풍한 미제와 그 주구 박근혜역적폐당이 우리 삶과 운명의 태양을 가리워보려고 최후발악을 하고 있다.

동서남북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극히 무모해진 적들의 군사적대결 광기는 우리 백두산군대의 전체 장병 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참고참아오던 마지막인내의 탕개마저 끊어버리게 하고 있다.

감히 생령보다 더 신성한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 나선 특대형도발 자들은 무자비하게 박멸·버릴 열의로 천만인 심상의 피를 펼쳐 끌고 있다. 청년 학생들이 너도나도 자기의 전투기록장들에 조선인민군 입대, 복대의 탄원의 흔적을 죄기고밖으로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이 한손에는 마치와 날을, 다른 한손에는 멀찍이 총검을 비껴들고 충정의 700일 전투의 대승리로 혁명의 수뇌부를 걸사용하고 최고존엄에 도전해나 선 흥악한 원쑤들의 천하무도한 망통을 차지없이 짓뭉개버리기 위한 최후결전에 떠나섰다.

똑바로 알아야 한다.

그가 누구이건 우리의 최고존엄을 해치려는 순간부터 세운으로 제 무덤은 부를 가장 어석하고 가장 고통스러운 지면의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씨도 없이 쳐부시고 혼적도 없이 불마다로 믿들며 항복으로 도장을 찍을 놈에게 뮤지지 한 호전광들에 게 무자비한 불세례를 안기자!

바로 이것이 원쑤적멸의 기상으로 용암마냥 훈련된 백두산대 국의 업숙한 선언이다.

우리는 수십년간 자체 할대로 자체하여왔다.

그러나 우리의 자체력에도 한계가 있다.

천만군민은 날강도 미제와의 최후결전을 위해 세기를 두고 다져온 우리식의 탄핵전이 이 세상 상상할수도 없는 삼黜직은 보복전으로 되게 할것이다.

신군령장의 백승의 신념과 단숨에

의 공격정신을 제질화한 김일성민족이 어떤 민족인지, 김정일조선이 어떤 나라인지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에게 자기의 상태가 누구인가를 물수에 사무하게 할것이다.

존엄들은 혁명의 최고수뇌부를 자기 삶의 전부보다 더 신성시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이다.

언제나 배승만을 떨쳐온 조선혁명의 자랑스러운 력사는 곧 자주의 력사, 존엄고수의 성스러운 력사이다.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오늘까지 우리에게서 뒤틀 때를 끌고 놓아나기만 한 것이 미제의 수치스러운 전통이 고비대한 힘을 밟고 서쳐내는 미국을 걸어온다. 통째하게 죽쳐내기만 한 것은 미용조선의 자랑스러운 전통이라 는 것, 법칙과도 같은 이 전통은 우리로도 영원할것이라는 것을 력사는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신념으로 새겨주고있다.

경에 하는 김정은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전승업적과 선군혁도업적을 만드는데 길이 빛나며 혁명선열들과 로병들의 영웅적로운 정신으로 조국수호정신을 굽건히 이어나가는 것은 반제반미대립을 종결하고 조선혁명의 최후승리를 앞당겨나가는 데서 우리 당이 만을 이것을 깨달았어야 조선전쟁을 일으키는 것과 같은 업적은 실수를 하지 않았을것이라고 기관하였다.

조선전쟁은 사실상 보병총파 원자원의 대결이라고 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

하기에 미제는 72시간안에 조선을 정복할것이라고 호연장량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그 72시간이 수백번 더 반복되며 풀을 풀은 남의 나라에 땅에 기여들어 불을 지른 범죄의 대가가 쓰러진 폐배로 되리라는 것을 알지 않았다. 결국 미제는 미국『유에스 뉴스 앤드 월드 리포트』지가『미군의 손실은 미국인이 다섯번의 대전쟁 즉 독립전쟁, 1812년 전쟁, 미에 교전쟁, 미국-에스파냐 전쟁 및 필리핀전쟁에서 입은 손실을 다 합친 것보다 2배 이상 더 많다.』고 말았다. 전쟁은 징집전쟁 4년 동안에 입은 손실의 거의 2.3배에 달하는 손실을 입고 조선인민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어디 그뿐인가.

미제가『부에블로』호 사건을 구실로 방대한 침략무력을 조선반도에 집결시키면서『보복』과 전쟁을 떠들고 주변나라들도 미제의 전쟁황증에 겁을 먹고 혁전쟁이 터진다고 아우성치면서 나포한 간첩선을 털려주라고 간청해왔던 1960년대에는『보복』에는 보복으로, 전쟁전쟁에는 견면 전쟁으로 놓여 유명한 톡탄선으로 지구를 들었다놓으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 놀라운 엄연한 사실들앞에서 세상사람들은 위대한 영광을 모실 때 승리의 전통은 영원하다는 력사의 진리를 알게 되었다.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 나선 특대형도발자들은 그가 누구이든 이 하늘 아래 살아온 수를 알지 모조리 죽탕처 쳐서 헤매 장해버리려는 것이 우리 군대와 인민의 억척불변의 의지이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제와 그 주구 박근혜역적폐당의 국악한 도발망으로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발표된 공화국 정부, 단체 특별성명에 접하고 보니 적들에 대한 치솟는 격분을 금할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미친개는 제때에 때려잡아야 후원기 없는 범이다.

혁명의 수뇌부의 두리에 천만군민이 천결만결으로 풍진 수령결사용위의 성세는 그 어려운 흥행으로, 그 무슨 무슨 작전으로도 절대로 건드릴수 없다.

적들이 감히 어리석개도 투수작전의 사소한 기미라도 보인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공화국에 따라 우리 공화국의 전체 인민들은 흑우격렬의 미제와 혁명의 전도와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 충정의 70일전투의 대승리로 혁명의 수뇌부를 결사옹위하자

## 활화산처럼 라오르는 결사관철의 불길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안고 기적을  
창조해간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 접한 삼지연지구 철길건설돌격대 일군들과 풀격대원들이 미제와 남조선역 적폐당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보복의지를 알고 파감한 돌격전을 들이대며 철길건설에서 혁학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당일 부임이라면 한마음한뜻으로 떨쳐일어나 산도 끌고기 바다도 빼우는 기적을 끊임없이 창조해나가는 것은 우리 인민의 투쟁 전통이며 기질입니다.』

철길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과 지점들은 보통 해발 1 000m가 넘는다. 용암이 흘러내려 바위와 절벽을 이룬 곳이 있는가 하면 암반이 전혀 없이 흙과 자갈로 뛰어진 텐트형성과 굴진에 불리한 지대가 적지 않다. 겨울이 걸어 습식공사에도 불리하다.

우수, 경침에 대동강얼음이 녹는다고 하지만 백두산기슭에는 눈, 얼음이 아직 깔려 있고 뒷없이 눈보라가 데친다. 그러나 충정의 70일 전투에 떨쳐나선 삼지연지구 팀길건설돌격대 일군들과 풀격대원들은 엄혹한 자연환경에서도 주저없이 언량을 깨내고 바위를 들부시며 백열전을 벌리고 있다.

7 0일전투가 시작되면서 현장지휘부에서는 대담하고 공세적인 전투작전계획을 세웠다. 로안파 차굴, 철다리 건설을 비롯한 기본공사들을 7 0일전투기간에 기본적으로 끝내기 위한 목표였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그 실천방도를 대중의 무공무진한 정신력을 분출시키는데서 찾았다. 현장지휘부일군들은 대량 파편장과 차굴판동을 위한 전투장을 비롯한 공사장들에 나가 현실에서 결린 문제들을

알아보고 물어주면서 공사의 선호차를 바로 정하고 섬멸전을 풀이데록 하고있다. 이와 함께 혁신성직자사업을 전공식으로 펼쳐 풀격대원들의 기습마나에 배우의 혁명정신이 창조된 항일의 피어민 전구에서 우리 당이 절친 7 0일전투에 참가했다는 공공사속도를 둘여나가고 있다.

평양시련단 일군들과 풀격

대원들도 화재에 대한 지대의 흙을 들어내고 수십리의 어진 곳에서 풀과 흙을 날라다짐을 하면서 로반형성을 다지고 있다.

북부길청년돌격대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그 어느 땅에나 보상과 자체보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결사판침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로반형 공사량의 9 5 % 계선을 돌파하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각지의 현장판단위 일군들과 풀격대원들이 결사의 의지로 힘과 함께 조립식축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공사성과를 확대하고 있다. 집중적인 밤파구를

## 비단실생산 2배 장성

### 잡업 비단공업 국아래 공장들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경공업전선은 동업전선과 함께 혁신기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루전에서 혁명의 힘을 집중해야 할 주제방향입니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에 접한 잠업비단공업국 아래 공장들은 원수제적령의 고귀한 맘을 바탕으로써 백두산제세워인들의 불의의 업적이 어려워 있고 항일혁명선열들의 고귀한 피가 스며있는 백두대지에 행복의 기적스러운 높이 울려갈 그날을 앞당겨 올동계에 풀격대원들의 결사의 의지가 드겁게 배포되고 있다.

혁명의 수녀부를 목숨으로 사수하며 당시 임공파업을 결사판침하려는 일군들과 풀격대원들의 무비의 혁생성과 대중적영웅주의가 높이 밝혀져는 혁신—삼지연을 축길을 확장하는데 혁신—삼지연을 축길을 건설에서는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과 위훈이 창조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

관원들은 공장현대화에서 혁신으로 끌어들여온 평양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족들의 도발 당장을 모조리 죽장처벌의 지침을 입고 공장의 현대화와 당파파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직장장 김석일동무를 비롯한 직장의 지휘성원들이 험 있는 정치사업으로 대중의 심장에 불을 달고 이신착의 모범으로 생간적양의 불길을 퍼트려고 있다.

석영일, 양성철, 김경익, 전철남동무를 비롯한 어제날의 영예들은 우리의 수령결사옹위전은 전후방에 끌어들여온 1 0 %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가공직장의 종업원들이 전투목표를 매일 1. 3배 이상 넘쳐 수행하면서 전투의 일정에서 혁명적인 정신과 굳건기풍을 남김의 앞장에서 기세 좋게 내달리고 있다.

공장의 당파직장 종업원들도 지금 혁신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키고 있다.

이곳 직장 사람작업반원들은 비록 가정부임이지만 멀지 않은 의지를 암고 기대마다 만개동을 보장하여 매일 작업반생산계획을 1. 2 배로 넘쳐 수행하고 있다.

공장인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적들이 최후발악을 하여도 태양이 영원하듯이 우리 혁명의 수녀부는 영원하며 그 무엇으로써도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을 수 없다는 시대의 자각을 암고 7 0일전투의 격전에서 혁명적인 정신과 굳건기풍을 남김의 앞장에서 기세 좋게 내달리고 있다.

전 혜영



신발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 원산 구두 공장에서 —

본사기자 리 총성 찍음

## 풀 꽂는 경설장에서

### 발파소리는 울리지 않아도

포태천풀짜기에게 전개한 황해북도련단에서는 대담하고 용법과 공사파제가 말려졌다. 그 런데 공사장은 전부 깨어지른 듯 한 절벽으로 이루어진 공간에서 사서에 공사속도를 높이자면 많은 발파를 진행해야 했다.

려단장 정혁영을 유정민동부는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정치부장 한경혁동무가 민길을 떠났다. 1 2 시간 동안

채의 살림집과 얼마 되지 않는 남새밭이 눈에 걸렸던 것이다. 『이무래도 다른 방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말에 정치부장도 공감을 표시하였다.

공사는 몇 갑질 힘들어도 인민의 재산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된다는 결심에서였다.

려단장 정혁영을 유정민동부는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하였다.

정치부장 한경혁동무가 민길을 떠났다. 1 2 시간 동안

자강도련단에서 발파를 위한 개작업을 진행할 때였다.

공사장에 전기를 보내주던 발전기는 깨지거나 멎어섰다. 그에 따라 공사파제가 멈춰버렸다. 자재와 부속품이 필요하였다.

려단에서는 강제에서 그것 을 가져오기로 결심하였다.

정치부장 한경혁동무가 민길을 떠났다. 1 2 시간 동안

드디어 1 0 여m깊이에서 생물이 활활 솟구쳤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맛보는 더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풀격대원들은 한층카이를 끌어올리면서 우물파는 작업에 탈락붙었다. 수질이 좋은 새우물을 찾아 땅을 파기로 하였다. 우리 정치부장은 정말 당시에 바라는 약전형의 민에 만난 식구들과 이야기

풀격대원들이 찾은 샘물

성, 중앙기판련단 4 대대 병실주변에 새 우물이 생겨났다.

2 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이 마을에는 원래 우물이 있었으나 가물질과 거울에는 물량이 줄어 사람들은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하

드디어 1 0 여m깊이에서 생물이 활활 솟구쳤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맛보는 더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풀격대원들은 한층카이를 끌어올리면서 우물파는 작업에 탈락붙었다. 수질이 좋은 새우물을 찾아 땅을 파기로 하였다. 우리 정치부장은 정말 당시에 바라는 약전형의 민에 만난 식구들과 이야기

풀격대원들이 찾은 샘물

성, 중앙기판련단 4 대대 병실주변에 새 우물이 생겨났다.

2 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이 마을에는 원래 우물이 있었으나 가물질과 거울에는 물량이 줄어 사람들은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하

드디어 1 0 여m깊이에서 생물이 활활 솟구쳤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맛보는 더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풀격대원들은 한층카이를 끌어올리면서 우물파는 작업에 탈락붙었다. 수질이 좋은 새우물을 찾아 땅을 파기로 하였다. 우리 정치부장은 정말 당시에 바라는 약전형의 민에 만난 식구들과 이야기

풀격대원들이 찾은 샘물

성, 중앙기판련단 4 대대 병실주변에 새 우물이 생겨났다.

2 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이 마을에는 원래 우물이 있었으나 가물질과 거울에는 물량이 줄어 사람들은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하

드디어 1 0 여m깊이에서 생물이 활활 솟구쳤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맛보는 더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풀격대원들은 한층카이를 끌어올리면서 우물파는 작업에 탈락붙었다. 수질이 좋은 새우물을 찾아 땅을 파기로 하였다. 우리 정치부장은 정말 당시에 바라는 약전형의 민에 만난 식구들과 이야기

풀격대원들이 찾은 샘물

성, 중앙기판련단 4 대대 병실주변에 새 우물이 생겨났다.

2 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이 마을에는 원래 우물이 있었으나 가물질과 거울에는 물량이 줄어 사람들은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하

드디어 1 0 여m깊이에서 생물이 활활 솟구쳤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맛보는 더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풀격대원들은 한층카이를 끌어올리면서 우물파는 작업에 탈락붙었다. 수질이 좋은 새우물을 찾아 땅을 파기로 하였다. 우리 정치부장은 정말 당시에 바라는 약전형의 민에 만난 식구들과 이야기

풀격대원들이 찾은 샘물

성, 중앙기판련단 4 대대 병실주변에 새 우물이 생겨났다.

2 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이 마을에는 원래 우물이 있었으나 가물질과 거울에는 물량이 줄어 사람들은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하

드디어 1 0 여m깊이에서 생물이 활활 솟구쳤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맛보는 더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풀격대원들은 한층카이를 끌어올리면서 우물파는 작업에 탈락붙었다. 수질이 좋은 새우물을 찾아 땅을 파기로 하였다. 우리 정치부장은 정말 당시에 바라는 약전형의 민에 만난 식구들과 이야기

풀격대원들이 찾은 샘물

성, 중앙기판련단 4 대대 병실주변에 새 우물이 생겨났다.

2 0여세대의 살림집들이 들어앉은 이 마을에는 원래 우물이 있었으나 가물질과 거울에는 물량이 줄어 사람들은 적지 않은 애로를 느끼고 하

드디어 1 0 여m깊이에서 생물이 활활 솟구쳤다. 그때의 기쁨이란 인민을 위한 길에서 맛보는 더없는 보람이고 긍지였다.

## 조로 경제적 및 문화적 협조에 관한 협정체결 6·7동에 로씨야 대사관 연회

제부문 일군들이 초대되었다.

전체 대사관 비롯한 로씨야 대사관 성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연설들이 있었다.

연회 참가자들은 조선민주주

일군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풀격대원들을 풀이해 고마워하고 있다. 그들은 혁신을 통해 풀격대원들이 말파모리로써 그들을 고무 추동하고 있다.

7 0일전투로 풀들은 전투장마다에는 이런 글발이 나붙어 있다.

백두산은 우리를 부른다! 이 글발에는 혁신—삼지연 넓은 철길건설장에 에 국축정의 고귀한 맘을 바탕으로써 어진 곳에서 풀과 흙을 날라다짐을 하면서 로반형성을 다짐을 하면서로 반형성을

백두산제세워인들의 불길로 고귀한 피가 스며있는 백두대지에 끝까지 그날을 앞당겨 올동계에 풀격대원들의 결사의 의지가 드겁게 배포되고 있다.

북부길청년돌격대 일군들과 청년돌격대원들은 그 어느 땅에나 보상과 자체보상의 어려움에 걸쳐나온다. 풀격대원들이 결사의 의지로 힘과 함께 결사판침의 정신을 높이 밝혀져는 혁신—삼지연을 축길을

1 7 0 %로 넘쳐 수행하여 국적으로 제일먼저 상반년 인민 경제계획을 끌어올렸으며 미쳐 날뛰는 국적으로 제일먼저 상반년 인민 경제계획을 끌어올렸다.

김정숙령양제사공장의 뒤를 바짝 따르고 있는 활동제사공장에서도 지난 3월 1 2일 상반년계획을 수행하였다.

강서제사공장, 성천제사공장의 종업원들도 따라앞서기, 따라앞서는 풀격대원들이 앞서나가도록 하는데 주되는 힘을 냉고 조건보장대책을 면밀히 따라세우고 있다.

수령결사옹위성전의 불길 높이 전폐 없는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내달려온 이들의 힘은 풀격대원들의 힘에 비해 우수하다.

수령결사옹위성전의 불길 높이 전폐 없는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내달려온 이들의 힘은 풀격대원들의 힘에 비해 우수하다.

수령결사옹위성전의 불길 높이 전폐 없는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내달려온 이들의 힘은 풀격대원들의 힘에 비해 우수하다.

수령결사옹위성전의 불길 높이 전폐 없는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내달려온 이들의 힘은 풀격대원들의 힘에 비해 우수하다.

수령결사옹위성전의 불길 높이 전폐 없는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내달려온 이들의 힘은 풀격대원들의 힘에 비해 우수하다.

수령결사옹위성전의 불길 높이 전폐 없는 생산실적을 기록하며 내

# 침략자, 도발자들은 가장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 승리는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전통이다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들이 원쑤들에 대한 치솟는 증오와 면적의 의지로 부글부글끓고 있다. 그 어디를 가나 조선인민의 험천지원주 미제와 천하에 둘도 없는 박근혜 악적폐당의 악성을 불마당질해버리고 조국통일의 혁사적 위업을 성취하자는 합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의 경고와 내외의 강력한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방대한 병력과 수많은 해타격수단들을 통원하여 침략적인 『끼 리풀브』, 『독수리 16』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해 나선 것은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해전경위기를 고조시키는 엄중한 도발이다.

지금에 와서 더는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생존공간을 핵참회속에 끌어놓으려고 저랄팔하는 미국과 박근혜 악적폐당의 추악한 정체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감히 『북진공작전』까지 떠벌이며 그 실현에 악을 쓰며 달리는 오늘의 혐악한 사태는 우리의 마지막인내심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과 불, 해파혁의 대결뿐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공화국 정부, 정당, 단체 특별성명과 조선인민군 충장부모 성명은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아직까지 자보지 못한 무서운 공포와 씨디션 참배를 들의 우고야말라는 우리 천만군민의 치솟는 보복의지를 대변한 것이다.

날로 무분별해지는 미국과 피뢰군부불한당들의 북침해전쟁도발소동을 강력한 군사적제역으로 제압분쇄하는 것은 현정체의 절박한 요구이다.

울해에 들어와 미국과 남조선피뢰들의 반공화국암살책동은 최극단에 이르

고았다.

미국과 박근혜 일당은 우리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법적인 우주개발 활동을 악랄하게 걸고들며 새로운 『제재 결의』를 조작해낸데 이어 군사적 도발을 미친 듯이 강행하면서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엄중히 위협하고 있다.

술 같은 특수작전무역들을 해살인장비들을 남조선에 대대적으로 끌어들인 미국과 피뢰군부폐들은 『참수작전』의 현실성경토록 전쟁폭언을 거리며 우리 인민을 굽복시키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상승시단』의 선전대인 스미스투공대는 오산계선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순식간에 풍지박살났다.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미제 『블리모』호는 바다속 깊이 수장되었다.

도적고양이처럼 숨어나니며 살구명을 찾던 미제 24사단장 뮤는 나어린 조선인민군 전선에 포로되어 세상의 웃음 벙어렸다.

미 8군사령관이었던 워커는 인민군 적후부대의 예복에 걸려 황천재가 되고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들이 수방관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미 8군사령관이었던 워커는 인민군 적후부대의 예복에 걸려 황천재가 되고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들이 수방관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과 피뢰들이 감히 『북진공작전』까지 떠벌이며 그 실현에 악을 쓰며 달리는 오늘의 혐악한 사태는 우리의 마지막인내심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과 불, 해파혁의 대결뿐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감히 『북진공작전』까지 떠벌이며 그 실현에 악을 쓰며 달리는 오늘의 혐악한 사태는 우리의 마지막인내심마저 사라지게 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오직 불과 불, 해파혁의 대결뿐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조선반도정세가 분분 초초에 걸친 8월을 맞이해 올해의 8월을 들이켜보아야 한다.

당시 저들의 헌법무력으로 능히 『북과

백두산총대이다.

지난 세기 50년대에 미국은 침략전쟁들에서 악명을 떨친 정예사단들파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고 발광하였다.

그러나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상승시단』의 선전대인 스미스투공대는 오산계선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순식간에 풍지박살났다.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미제 『블리모』호는 바다속 깊이 수장되었다.

도적고양이처럼 숨어나니며 살구명을 찾던 미제 24사단장 뮤는 나어린 조선인민군 전선에 포로되어 세상의 웃음을 벙어렸다.

미 8군사령관이었던 워커는 인민군 적후부대의 예복에 걸려 황천재가 되고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들이 수방관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조선반도정세가 분분 초초에 걸친 8월을 맞이해 올해의 8월을 들이켜보아야 한다.

당시 저들의 헌법무력으로 능히 『북과

의 국지전을 치르어낼수 있음것』이라고 허세를 부리면 미제와 피뢰군부는 우리의 강력한 군사적대응앞에 얼훈이 빠지게 된다.

백두산혁명강군의 단호한 공격기상 앞에 기절초풍한 적들은 『북이 순식간에 전력을 증강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상승시단』의 선전대인 스미스투공대는 오산계선에서 우리 인민군대의 강력한 타격을 받고 순식간에 풍지박살났다.

『바다우에 떠다니는 섬』이라고 호언장담하는 미제 『블리모』호는 바다속 깊이 수장되었다.

도적고양이처럼 숨어나니며 살구명을 찾던 미제 24사단장 뮤는 나어린 조선인민군 전선에 포로되어 세상의 웃음을 벙어렸다.

미 8군사령관이었던 워커는 인민군 적후부대의 예복에 걸려 황천재가 되고 미국동군사령관 겸 『유엔군사령관들이 수방관할수 없는 위험천만한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해 주고 있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이 히스테리적인 폭기를 부리며 우리 공화국에 가장 로맨틱한 군사적도발을 걸어온 이상 우리는 보다 선제적이거나 보다 공격적인 우리식의 강력한 대응조치들을 다발적으로, 편발적으로 위해 나가게 될 것이다.

미국과 피뢰들은 조선반도정세가 분분 초초에 걸친 8월을 맞이해 올해의 8월을 들이켜보아야 한다.

당시 저들의 헌법무력으로 능히 『북과

## 재 중 조선 인 총련 합회 부의 장 담화 발표

차상보 재 중 조선인총련 합회 부의장이 10일 『제재는 정의가 어떻게 지켜지고 승리하는가를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라는 제목의 담화를 발표하였다.

담화는 지금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그 누구의 지원도 방조도 없이 오직 자자자강으로 삶의 터전을 밟으며 자자위의 걸 끊어온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의 자위적인 혁액제력 강화조치와 합동군사연습을 결합하여 힘전체세를 갖춘 것은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방식으로 결파는 파편 어찌했는가.

지금 미국과 박근혜 악당은 미제와 남조선피뢰들이 우리 공화국

# 생명보다 더 귀중한 우리의 최고존엄에 도전해나선자들은 한놈도 살아남지 못한다

## 우리의 핵무력은 침략자, 도발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대규모적인 핵전쟁 불장난 소동은 세계 최대의 열점지역인 조선반도 정세를 다치면 더러운 한 핵전쟁 발발의 문어구에 바싹 짚고자고 있다.

무력 전개로부터 작전 수행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것이 이전의 학동 군사연습들에서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방대한 무력 증강과 우리 공화국에 대한 불의의 선제타격을 노리고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 핵전쟁 연습의 수수방관할 수 없는 위험성과 업종성이 있다.

이번 핵전쟁 연습에 투입된 병력의 규모는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 대한 전쟁을 개시하면서 들이밀고 하면 규모를 훨씬 늘어간다.

1999년 유고슬라비아 전쟁 전야에 3만 5,000명 정도의 나토 군부대를 2,001년 아프가니스탄 전쟁 전야에는 2만 8,000명, 2003년 이라크 전쟁 전야에는 25만 명의 다국적 병력을 전개하고 전쟁을 개시한 것은 달리 미국은 날조선 소동에 들어가면서 미제는 이번 「끼 리 플로브」、「독수리 16」 핵동군사연습이 국도의 도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부」를 노린다.

날조선에서 청정군을 주기적으로 벌려놓을 때마다 방대한 병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번 핵전쟁 연습은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전개되어 강행되고 있다. 군사연습에 용근 하나님의 청정을 치를 수 있는 대량학살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일의 순간에 실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연습개시를 전후하여 전개된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 또한 조선반도에 핵전쟁 발발 시각이 급박했다는 것을 실증해준다. 핵동군사연습을 앞두고 본토의 반엔거그립기지에서 우리 공화국을 노린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훈련을 벌려놓은 미군이 일본 「자위대」와의 핵동상륙훈련을 강행한 한동은 남조선에서 벌려놓을 미제의 북침 전쟁 연습의 전주였다.

비록 해상초대형 항공모함 탐지 격침 단을

비롯하여 지상, 해상, 공중 탐지 격침 단들이 대량 투입될 것으로 핵전쟁 발발의 업증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물장난 소동에 들어가면서 미제는 이번 「끼 리 플로브」、「독수리 16」 핵동군사연습이 국도의 도험적인 「작전계획 5015」에 준하여 우리의 최고수뇌부와 「제도전부」를 노린다.

연습의 전주였다.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기 위해 폭파된 핵폭격기들의 혼연으로 하여 이 땅에는 히로시마와 나카사키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 핵폭탄 투하로, 방사능 폐허지대로 화할 위험 천만한 시각이 닥쳐오고 있다.

연습에서 혼란에 허락수단과 단

부까지 선제타격한다는 「작전계획

5015」을 처음으로 적용한다는 것도 서슴없이 공개하고 있다.

간파할 수 없는 것은 적들이 무엄하게도 우리의 전략적 중추지대에 대한 「내륙진공작전」을 물고자 하는 그 무슨 「2부 공격훈련」이라는 것을 강행하면서 우리의 핵보유능력을 막고 핵통제권을 장악하려면

핵폭격기와 핵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적 타격수단들이 조선반도까지 도착하는 시간을 축

정하고 그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혼란을 벌리고 있다.

『방어, 증원, 격퇴, 진격』의 단계로 강행되는 핵동군사연습에서는 해외에서 미군과 주종국 군대를 신속히 기동하게 하여 북으로 급속히 진격한다는 도발적인 혼란들이 살벌하게 강행되고 있다.

우리 공화국의 해안조선과 류사한

남조선 포함 일대에서 레드 최대 규모로 강행되는 「방어」 「증원」 「도발」 그리고 물적적으로 떠들면서 전략적 타격수단들을 밀고 있다. 지어는 걸로 나마 「년례적」이요, 「방어적」이요 하던 기만적인 허울마저 벗어지게 되었다.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벌리기 위해 폭파된 핵폭격기들의 혼연으로 하여 이 땅에는 히로시마와 나카사

사키와는 대비도 되지 않는 핵폭탄 투하로, 방사능 폐허지대로 화할 위험 천만한 시각이 닥쳐오고 있다.

연습의 전주였다.

핵폭탄을 투하하는 연습을 주기적으로 벌려놓을 때마다 방대한 병력을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투입하고 있지만 이번 핵전쟁 연습은 사상 최대 규모의 병력이 전개되어 강행되고 있다.

군사연습에 용근 하나님의 청정을 치를 수 있는 대량학살을 동원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일의 순간에 실전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을 예고해준다.

명에 말하는 각계 각종 군중들이 인민군대 임대와 복무를 편원하였다.

적들의 수적, 기술적 우세를 허지장으로 민들이 벌써 있는 우리식 주제무기 활성을 알리는 커다란 사변들이

이 편평이 일어났다.

사거리가 세제적으로 제일 길고 명중성에서도 대단히 정확하며 아무리 특수복합장갑을 뒤집어쓰고 기동력과 타격력이 발전되었다고 자랑하는

장갑차들도 삶은 호박처럼 만드는 반탕크유도무기의 시험사격이 진행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

대 톨입 및 음성을 확고히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원쑤들을 전률시킬 또 하나의 주

체부기인 신형대경방장갑의 시험사격에서도 원천성으로써 주제한 5배나 되는 열흐름속에서도 첨두의 열역학적 구조인 청진성이 확증됨으로써 대륙간탄도로켓 전투부